

심의기준·결과 달라... “불공정 평가”

#법교위 평가 공정하지 못했다

동국대는 사법시험합격자 수, 대학교조 개혁 평가 등 양대평가 지표 순위에 반하는 결과와 수도권 내의 지역적 재배당, 구조개혁 우수대학에 대한 역사적 등을 법교위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동국대가 공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에 대한 총배점 15점 중 6점이상을 획득한 대학 가운데 동국대만 탈락했다. 또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대한 총배점 5점 중 5점 만점을 받은 대학 중에서도 동국대만 탈락했다.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과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배정된 총 20점 중 동국대는 11점을 얻었다. 이는 전국순위 11위, 서울권역 대학만으로도 9위에 해당한다.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인대, 서울시립대 등은 6-9점의 낮은 점수로 서울권역에서 10-14위인데도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주된 심사기준으로 알려진 사법고시와 구조개혁 실적이 우수한 동국대가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동국대의 주장이다.

경기와 강원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는 것도 잘못이다.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따른 지역 분할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자의적·

☑ 동국대 ‘로스쿨 탈락’ 문제점 진단

2월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발표에 불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월 29일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단과 동국대, 재단이 전력을 다해 동국대 로스쿨 인가를 받도록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후라 충격은 더 컸다. 동국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적으로 지역 구분이 적었다. 교육부의 확정발표가 미뤄진 것은 청와대와 협의 때문이었다. 협의내용은 경남 지역 등 일부 지역이 지역안배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으로 정부의 지역안배 원칙은 확고하다. 하지만 “인재양성에 지역균형 발전이론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라도 변호사, 경상도 변호사 등 지역 변호사 양성 보다는 불교계 변호사, 문화재 전문 변호사, 영회계 전문 변호사 등 사회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 변호사 양성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동국대 추가선정 여지는 있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확정 발표에서 추가선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인가대학 중 이행

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조정 시, 혹은 법 개정에 따라 총임학원이 증가할 경우를 추가선정 조건으로 밝혔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은 (탈락한 전체 대학이 아니라) 경남 등 예비인가 배정된 지역의 대학이다.

방회선 확장(동국대 법교위는 교육부 발표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9월전 추가선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체념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추가선정이 가능하더라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한 불자는 “혹여 차기에 선정되도 1차에 탈락한 오명에 추락된 2000만 불자의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국대도 2류라는 인식을 쉽게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계 위기관리 능력 부족 지적도

오영교 총장(동국대)은 “200억 상당의 투자와 20여명 이상의 교원 확보 등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200억원의 투자로 외형적 모습은 갖췄지만 오영교 총장이 총장협의회 등에 불출석한 것은 문제 있는 처사였다. 어찌 보면 동국대 탈락은 예견돼 있던 일”이라고 푸념했다.

교계의 대응이 늦고 무성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관 스님(총무원장)과 영배 스님(동국학원 이사장) 등 종단과 재단이 긴급 회동을 갖고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바빠 나섰지만 이미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가 있는 1월 29일 이후의 일이었다. 2월 5일 현재도 다른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법원에 심사서류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소송서류를 접수시키는 등 법적조치와 더불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교계의 움직임은 이상하리만치 점잖다. 9월 로스쿨 추가선정 시한을 앞두고 어떤 해법이 있을지 2000만 불자들이 주목한다. 조종섭 기자

인천불교범종단聯 창립기념 법회

무원·화승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 동참

인천불교범종단연합회(공동대표 무원·화승)는 2월 3일 인천 황룡사 3층 보물전에서 ‘창립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상임공동대표 무원 스님(천대총총무부장·황룡사 주지)은 이 자리에서 ▲낙후된 인천 지역 교세 발전 위해 불퇴전의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종파를 초월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소외받는 이웃을 보살피는 자비보살이 된다 ▲과거 불화와 불신의 아픈 상처를 거울삼아 이타행과 대승보살도 실천에 매진

해 나간다는 공약을 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탄공 스님(법륜종 종정)은 “오늘의 연합회 창립이 지난시절 반목과 갈등, 분열과 대립이라는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는 대장정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는 공동대표인 무원·화승 스님을 비롯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이원복 의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인천불교범종단연합회 창립식이 2월 3일 인천 황룡사 보물전에서 봉행됐다.

“신정아 학력조치 실수 유감”

예일대 총장 동국대에 사과

신정아 허위학력 조처와 관련해 미국 예일대 리처드 레빈(Richard C. Levin) 총장이 1월 31일 동국대 오영교 총장에게 공식 사과 서한문을 보내왔다.

이 서한문에서 리처드 레빈 총장

은 2005년과 2007년에 동국대가 요청한 학력조치에 대해 예일대가 실수한 행정적 착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학위검증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한문은 예일대학의 실수로 신정아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범어사동산문도회 문장 착좌식

능가 스님 “위계 질서 확립으로 화합 정진을”

범어사동산문도회(이하 동산문도회)가 문장착좌식을 열고 화합과 투명한 경영으로 위상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동산문도회는 1월 31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문장(門長)을 모신 ‘문장착좌식’을 봉행했다. 착좌식에서 동산문도회 문장 능가 스님은 “동산 스님의 한국불교 평화운동 정신을 명심하고 위계질서 확립과 투명한 재정관리”에 대해 전명하고 화합을 위해 정진할 것을 주장했다.

동산문도회는 2002년 6월 18일 ‘범어사 동산문도회’를 결성, 능가 스님을 원로 의장으로 모시고 2002년 8월 30일 동산문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가 스님을 문장으로 추대했다. 동산문도회는 “그동안 착좌식을 미뤄왔는데 동산대중사 문종의 화합, 범어사의 미래발전 그리고 부산시민의 안녕을 위하고 국민안을 위한다는 큰마음에서 착좌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능가 스님은 “범어사 승려들이 개교 이래 승가가 지켜야 하는 삼대 원칙, 동산 스님의 불교정화운동 정신, 위계질서, 투명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특히 사찰운영에 있어서 사리사욕과 해괴하고 방자한 기풍이 횡행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모두 함께 참회하고 화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능가 스님은 동산문도회의 화합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동산 스님의 한국불교정화정신을 깊이 새겨 명심하고 위계질서를 바로잡을

것과 공개적으로 범어사의 공영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산문도회 문장 능가 스님은 1950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 1957년 중앙종회 부의장에 선임되고 1960년 불국사 주지 임명, 1962년 조계사 주지 임명, 1970년 범어사 주지로 취임, 세계불교지도자대회 대회장 등 여러 중요한 요직을 역임했다.

문장착좌식에는 범어사 조실 자유 스님, 창계사 조실 고산 스님, 동산문도회 부문장 정관 스님,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죽림정사 조실 도륜 스님, 원로회의 수석부회장 지혜 스님, 해월정사 회주 천재 스님, 범어사 주지대신 스님, 강주 무비 스님, 유나 인각 스님, 율원장 지오 스님, 범어사 부주지 계천 스님 등 동산문도회 스님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첫 발’ 딛은 대운하 도보순례

순례기간은 5월 22일까지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성공회 등 5대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대운하 건설 예정지를 2월 12일부터 도보로 순례한다.

종교환경회의는 1월 3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순례대행령을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로 정하고, 순례기간을 2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확정했다.

순례단은 개신교 이필원 목사를 단장으로 불교계에서는 수경(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도법(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연관(봉암사 수좌) 스님, 원불교에는 흥현

두 교부(천지보은회 흥보실장), 성공회 최상석 신부(성공회환경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순례기간은 한강하구를 시작으로 남한강, 문경새재, 낙동강, 부산을 거쳐 호남순례 예정지인 목포로 이동해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걸게 된다. 이후 다시 충청권하 예정지인 금강 지역을 순례한 후 서울로 돌아온다. 순례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마당 ▲생명평화 문화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2월 19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 출범식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실적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원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보우승가대학)

본교는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신도포교에 꼭 필요한 실재적 이론과 기초의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종단승려의 추천에 의하여 누구나 입학가능하며 기초에서부터 전문으로 완성해드리는 보우승가대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입학안내

- ◆모집학과 및 정원
 - 법패학과 30명 / · 불교문화예술학과 30명 / · 전통강원반 40명 / · 교입교육과 30명
- ◆응모자격 : 신입생 : 승려 및 재가자
 - 편입생 : 지원학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재(2학년으로 편입가능)
 - 전통강원반 : 일반불교양대학 이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이수자
 - 교입교육과 : 희망자
-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교 교학처 · 기간 : 2월 1일 ~ 2월 15일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 에서 다운 받거나 팩스 747-9290로 제출.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반명함판 사진 3매
 - 4) 전 형 로 5만원

*기숙사 완비(숙식제공)
1인 1실 : 월 25만원 / 2인 1실 : 월 25만원

2. 입학전형일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3. 합격자 발표 : 2008년 2월 23일(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게재

4. 교 과 목

학 과	목 표	교 과 목
법 패 학 과	의식의 기호인 목탁 잡는 법 에서부터 49재의식까지 봉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기초불교교리, 상주권공, 호적
불 교 문 화 예 술 학 과	불교교리 및 법당관리, 사찰운영에 꼭 필요한 모든정음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함	기초불교교리, 재설비 (도량정역, 교입세, 지화, 서예등), 생활역학
전통강원반	선암사 강주를 역임하신 운법스님께서 경전을 전통 강원식으로 집중 교육하는 전통자과정임	사미, 사집과 : 치문, 도서, 선요, 서장, 절요 사 교 과 :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교입교육과	6개월 과정으로 교입 또는 승려의 권속이나 신도회간부, 사찰운영의 초보자들에게 승려를 보좌하고 준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위상을 정립토록 교육함	기초불교교리, 불교의식, 생활역학, 사찰경영학, 재설비(도량정역, 지화, 교입세, 금은전, 승의학, 다도, 꽃꽂이, 참선실수

연락처 : 02-763-5213, 팩스 : 02-747-9290